제임슨의 레닌 – Is There a Jameson's Lenin or a Jamesonian Lenin?

이택광

1.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미국의 맑스주의 문화비평가이다. 헤겔 맑스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서 독일의 비판이론과 프랑스의 현대철학을 통해 맑스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제임슨은 그 명성에 비해 한국에서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론가이다. 그가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 상징행위로서의 서사』(*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에서 창안한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국의 비평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유행어로 안착했지만, 그에 대한 한국 지식계의 관심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나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에 비해 썩 그렇게 열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초기 저작에 해당하는 『맑스주의와 형식: 20세기 변증법적 문학이론』(*Marxism and Form: Twentieth Century Dialectical Theories of Literature*)과 『언어의 감옥: 구조주의와 러시아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The Prison-House of Language: A Critical Account of Structuralism and Russian Formalism*)이 일찌감치 번역되어 나왔고, 비교적 최근 저작에 가까운 『후기 맑스주의: 아도르노 또는 변증법적인 것의 지속』(*Late Marxism: Adorno, or, The Persistence of the Dialectic*)과 독자적으로 출판된 논문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한 『가시적인 것의 날인』(*The Signature of the Visible*)이 번역되었지만, 그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무의식』과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논리』(*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는 아직 한국어판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다소 미지근한 제임슨 수용 현상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로 가능할 것이다. 번역본의 사정이 수용사의 맥락을 더듬어볼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임슨 번역의 계보학은 무엇인가 징후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3. 흥미롭게도 창작과비평사에서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맑스주의와 형식』의 역자들과 『언어의 감옥』의 역자는 원본에 있는 레닌이나 맑스에 대한 제임슨의 인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심지어 삭제해놓았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번역의 왜곡은 80년대 검열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역자들은 의도적으로 "맑스주의자" 제임슨의 색깔을 희석시켜야했기 때문이다. 제임슨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미국식 아류로 받아들이고, 손쉽게 "수정주의자"로 인식했던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4. 그러나 외부 검열의 강도가 다소 약화된 90년대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에서 제임슨은 주요한 포스트모더니즘 논자로 귀환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임슨은 이 무렵 아도르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에 대항할 무기로 신좌파의 부정 변증법을 옹호하고 있었다. 아도르노에 대한 제임슨의 재평가는 『후기 맑스주의』의 역자 서문이 잘 보여주듯이, 제대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제임슨의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구 좌파 전통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임슨은 화려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들을 복잡하게 설명한 괴이쩍은 수정 맑스주의자로 여전히 기억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스트에게는 너무 근엄하고, 맑스주의자에게는 너무 날렵한 이론가로 인식되어서,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

을 받지 못했다.

5. 제임슨에 대한 외면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악명 높게 난해한 독특한 문체를 꼽을 수 있다. 서구 신좌파, 특히 아도르노의 영향을 받은 제임슨은 문체와 사유의 구조를 동일시한다. 복잡한 문체는 변증법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난해한 문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리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해 취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리얼리티가 복잡할수록 문체 또한 복잡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제임슨의 글쓰기 방식이 다른 이론에 개입해 들어가는 "메타 비평(metacommentary)"이기에 이런 문체의 난해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슨은 이런 방식을 통해 "글쓰기의 쾌락"을 즐긴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런 텍스트의 쾌락을 제임슨은 "수공예적 만족감이라고 불리곤 했던 작은 장소"라고 보면서, 이를 보전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6. 이런 제임슨의 진술은 그의 이론적 기획이 어디에서 연원하는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만든다. 제임슨은 프랑크푸르트학파에 대한 일련의 독서를 통해 텍스트 읽기와 쓰기를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수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임슨은 리얼리티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주체와 세계 사이에 숱한 개념의 상호작용을 나란히 늘어놓는다. 따라서 제임슨을 한두 마디로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무의미한 일이다. 제임슨 저작은 그 자체로 1차 문헌이자 동시에 2차 문헌이기 때문이다.

7. 그러나 문체의 난해성은 제임슨을 외면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난해한 문체로 친다면 제임슨도 울고 갈 숱한 이론가들이 인문도서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임슨을 한국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은 정치적 요인 때문일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도 알게 모르게 한국사회를 잠식해버린 정치적 우경화가 제임슨에 대한 침묵을 조장한 것이다. 아도르노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이미 간파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이제 진보주의 성과는 소비주의와 한통속이 되어버렸다. 소비의 그물망에 포섭되지 않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제임슨은 60년대 이후 진행된 정치적 우경화의 과정을 "탈맑스화(demarxification)"라고 불렀는데, 이런 과정이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맑스주의자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 논자 제임슨과 구분되어야 했지만, 제임슨 자신은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인식을 얻고자 한다. 물론 제임슨 자신도 맑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조우를 일컬어 "기이하거나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포스트모던 맑스주의라는 조합이 "철 지난 기념품점"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임슨이 맑스주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서로 결합시키는 까닭은 "탈맑스화"의 국면에서 맑스주의의 방법론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제임슨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 자본주의의 징후이고, 다양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들은 이런 징후를 설명하기 위한 서사 전략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임슨은 탈역사적인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을 교정할 절대적 지평으로서 맑스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슨의 맑스주의는 독자적 체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론 속으로 개입해 들어감으로써 현신하게 된다.

9. 이런 사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맑스주의를 하나로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자의 현상을 후자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임슨은 맑스주의를 거대한 종합의 틀로 이해하는데, 이런 이해방식은 변증법적 매개에 초점을 맞춘 헤겔 맑스주의를 그가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제임슨에게 개별 이론들은 변증법적 매개의 과정을 통해 실천 속에서 종합될 수 있는 추상의 물화(物化)이다. 이런 제임슨의 사유방식은 분명히 영미지식계 내에서 상당히 드물고 특이한 것이다. 이처럼 제임슨의 기획은 다른 이론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까닭은 제임슨의 입장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 전통이 동시대적 영미지식인과 전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어떤 전통이 제임슨이라는 왕성한 식욕을 가진 불가사리를 만들어낸 것일까.

10. 1976년에 출간한『서구 맑스주의 고찰』(*Considerations on Western Marxism*)에서 영국의 신좌파 지식인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은 루카치(Georg Lukács)에서 사르트르(Jean-Paul Sartre), 그리고 마르쿠제(Herbert Marcuse)로 이어지는 서구 맑스주의 전통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사회적 조건의 소멸을 언급하고 그 종언을 예견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1998년에 출판한『포스트모더니티의 기원』(*The Origins of Postmodernity*)에서 앤더슨은 이런 자신의 진단을 번복하고 있다.

11.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사르트르, 르페브르, 그리고 마루쿠제와 같은 2세대는 비맑스주의적 사고에 둘러싸여 고립되지 않고 창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판이론이라는 괄목할 만한 분야를 구축했다. 이것은 고전적 맑스주의가 미약하게나마 암시했던 방법에 대한 질문 --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인식론 -- 과 연관된 전통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철학은 단순히 과도기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철학이 중점으로 삼는 중요한 고려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전체적 노선의 공통 지평을 형성했다. 서구 맑스주의는 무엇보다도 고도 발전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일련의 이론적 탐구였던 것이다.

12. 여기에서 앤더슨이 서구 맑스주의를 "문화이론"으로 진단하는 것은 1976년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서구 맑스주의 고찰』에서 제임슨은 각주로 한번 등장하는데, 이때 앤더슨은 제임슨을 미학적 맑스주의 경향에 포함시키면서 제임슨을 서구 맑스주의의 "장엄한 최후"를 보여주는 징후로 거론한다. 그러나 1998년에 이르러 앤더슨은 이런 제임슨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수정했던 것이다. 이제 제임슨은 마지막 서구 맑스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갱신하고 발전시킨 맑스주의 이론가로 재평가된다.

13. 앤더슨의 진술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역사적 상대주의가 질풍노도처럼 밀려올 때 맑스주의라는 작은 돛단배를 타고 거센 파도를 타고 넘어갔던 제임슨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손을 거치면서 철지난 유행가처럼 보였던 맑스주의가 고도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최신의 방법론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서구 맑스주의의 종언을 암울하게 예언했던 유럽의 신좌파 그룹에게 하나의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기도 했다.

14. 제임슨의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가 영미 권에서 드물게 헤겔 변증법에 기반을 둔

서구 맑스주의의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제임슨은 80년대 서구 자유주의자들이나 좌파들로부터 거의 죽은 개 취급을 받던 루카치를 포스트모더니즘의 파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유력한 이론가로 부활시킨다. 제임슨이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논리"로 규정하는 방식은 형식을 "내용의 논리"로 파악했던 루카치의 개념을 세련되게 다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제임슨은 수미일관하게 단일한 루카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루카치의 모순성이야말로 "총체성의 이념과 리얼리즘 사이의 관계를 개념화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임슨은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을 총체성의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았던 것이다. 제임슨이 볼 때, 루카치를 비판하는 이들은 추상적 관념을 고찰하면서 이에 맞춰 현실을 희생시켜버리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다보니, 전기 루카치와 후기 루카치를 편의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슨에게 루카치가 근거하는 사적 유물론은 단순하게 추상적 관념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 자체에 대한 사유다. 루카치의 일관성은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다시 말해서 역사가 재현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비로소 현시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런 제임슨의 논의는 레닌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16. 레닌에 대한 제임슨의 논평은 그의 저작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레닌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레닌 리로리드: 어떤 진리의 정치를 향하여』(*Lenin Reloaded: Toward a Politics of the Truth*)라는 앤솔로지에 실려 있는 「레닌과 수정주의」("Lenin and Revisionism")이다. 이 책은 『지젝이 만난 레닌』(*Revolution at the Gates*)의 후속 같은 책인데, 원래 독일에서 지젝이 주관한 레닌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지젝은 이 컨퍼런스에서 「레닌 반복하기」("Repeating Leni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나중에 이를 다듬어서 이 책에 실었다.

17. 제임슨이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술을 위한 레닌의 분열주의적이고, 공격적이며, 종파주의적인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체계적이면서 파편적인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끝임없이 강조하는 전략"을 택할 것을 요청한다. 흥미롭게도 제임슨은 사회민주주의를 일종의 퇴보로 비판하지만, 동시에 복지국가를 옹호한다. 얼핏 보면 제임슨은 지리멸렬하고 자기 혼란에 빠진 채 자기 혐오증에 절어 있는 개혁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제임슨이 레닌을 변증법적으로 읽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슨에게 변증법은 최선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사유방식이다.

18. 살펴볼 내용:

-. One old book, Hilferding's Finance Capital of 1910, seemed to give a historical answer to an economic and structural question: the techniques of the great German trusts of the pre-World War One period, their relations with the banks and eventually the *Flottenbau*, and so forth -- the answer seemed to lie in the concept of monopoly, and Lenin appropriated it in this sense for his 1916 pamphlet o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which also seemed to do away with finance capital by changing its name and displacing it on to the power relations and competition between the great capitalist states. But these 'highest states' now lie well in our own past; imperialism is

gone, replaced by neocolonialism and globalization; the great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do not (yet) seem the locus of ferocious competition between the nations and the capitalist First World... ("Culture and Finance Capital")

-. Lenin still means something: but that something, I want to argue, is not precisely socialism or communism. Lenin's relationship to latter is on the order of the absolute belief, and since it never gets questioned, we will also find no new thinking about it in his work: Marx is a big Other, the big Other. Then what about something that everyone agrees to have been his most original idea: what about the party and the party structure? Is this still what Lenin means to us? It is, to be sure, except for the fact that no one nowadays wishes to raise the question or to mention the unmentionable term "party" ... ► 레닌의 당을 떠올리면 권위주의와 종파주의, 그에 이어지는 스탈린의 공포정치, 그리고 브레제네프의 부패로 귀결한다.

... There is a more naive and impressionistic way of talking about all of this, which does, I think, have its value and remain suggestive. This is feeling we all have, and which we sometimes express like this, in the form of amazement and admiration, namely that Lenin is always thinking politically. ("Lenin and Revisionism")

-. The rhetoric of power ... in whatever form, is always to be considered a fundamental form of revisionism.

-. We must insist that revolution has another face or dimension, equally essential, which is that of process itself (as opposed to Event). ► Sartre

-. The true meaning of Lenin is neither political nor economic, but rather both fused together in that Event-as-process and process-as-Event we call revolution. The true meaning of Lenin is the perpetual injunction to keep the revolution alive, to keep it alive as a possibility even before it has happened, to keep it alive as process at all those moments when it is threatened by defeat or worse yet, by routinization, compromise, or forgetfulness ... He didn't know he was dead.

-. One cannot change anything without changing everything.